

# 후반기 의장 4파전

〈전주시의회〉

## 조선의원들 표심이 당락결정 최대 변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협치 첫 시험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3~4명의 의원들의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 구도로 갈라진 가운데 치러지는 첫 선거로 양당 협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조선 의원들 표심의 향배도 당락을 가르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오는 5월에 있고, 8월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시의회 의장 후보군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명지(4선) 부의장을 비롯해 최찬욱(6선), 김남규(5선) 의원과 국민의당 황만길(4선) 의원이 뛰고 있다.

특히 전반기 부의장을 지내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김명지 시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부의장 송상준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이병하 의원, 운영위원장 강동하 의원, 문화체육위원장 이기동 의원 등이 김명지 후보와 단합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조직적인 움직임

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초부터 시의장 후보인 김명지의원과 더불어 상임 위원장직에 뜻을 둔 각 상임위원장 후보들의 명단이 흘러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산 알려지고 있다.

일부 조선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은 후반기 시의회가 집행부의 눈치를 받지 않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의장을 선출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때문에 집행부와 밀월을 의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진 의원들에 반감을 가진 조선 의원들이 뜻을 모아 조직적인 투표로 이어질 경우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주시의회는 34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민의당 9명, 무소속 2명, 새누리당 1명 순이다.

여기에 조선 의원도 13명이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전반기 원구성 당시 제대로 후보를 고르지 못했다는 조선 의원들이 2년여의 의정 경력을 발판으로 이번에는 신중한 투표를 하겠다고 버리고 있어 후반기 의장

단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결선투표로 갈 경우 2~3위 후보들의 합종연횡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로서는 시의회에 의원 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형국이지만, 같은 당에서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데다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서 더민주당내 의총의 투표 결과가 뒤집어진 전례를 볼 때 난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27명 도의원들은 지난 21일 당내 의장 후보결정 투표에서는 이상현 의원이 17표를 얻어 10표에 그친 황현 후보를 제치고 의장후보로 선출됐다.

하지만 28일 도의회의장 본선 투표 결과에서는 황현 후보가 25표, 이상현 후보가 12표를 얻어 당내 사전 투표를 뒤집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도 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같은 반발표가 쏟아질 경우 의외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시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후보들의 물밑접촉이 치열하다.

/김영재 기자



장마는 한창 진행중

1일 오후 시내 거리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보 돼 있다.

## 전주시, 도내 지방세 징수 '최우수'

### 3회 연속 선정

전주시가 전라북도 시·군 중 지방세 징수업무를 가장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주관한 '2016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도 주관 평가에서 '2015년 세정운영평가' 종합 1위와 '2015년도 징수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의 지방세 징수율과 자동차세 징수촉탁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이번 시·군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북도 전체 세수 7440억원 중 27.7%인 2060억원을 징수하고, 도 평균 징수율(93%)보다 1.1% 높은 94.1%의 징수실적을 거두는 등 각 평가항목별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타 시·군과 차별화된 지방세징을 위해 협소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납세자 중심의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근 성실 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모범납세자 증서를 수여했다.

또한 시는 세무사 26명을 마을세무사로 임명해 사회적 취약 계층이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무료로 조세에 대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시민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과 출근길 거리캠페인, 시내 버스 내 납부홍보, SNS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했다.

장병호 전주시 재무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납세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전주시가 연속해서 '지방세 징수 최우수기관' 성적을 거둔 것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전 세무공무원이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납세자를 위한 선진세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직원간의 업무연찬과 현장중심의 세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외곽지역 보건소 3곳에 CCTV 설치

전주시가 최근 도서벽지 등에서 홀로 근무하는 여성들 치안에 위협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홀로 근무하는 관내 외곽 지역 보건진료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안전대책에 대한 긴급회의를 갖고, 여성보건인력이

홀로 근무하는 중진보건진료소와 도덕보건진료소, 금상보건진료소 등 관내 외곽 지역에 설치된 3개 진료소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소는 각 진료소 내 CCTV 설치를 통해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또한 해가 짧은 동절기에는 진료소 주변이 안전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 실시를 통해 심야근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홀로 근무하는 여성근무자들이 호신용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토록 하는 등 진료소 근무자의 신변보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풍남문 상가 31개동 간판 정비

전주시가 풍남문과 전라감영을 사이에 위치한 풍남문 상가점가의 간판을 새롭게 정비한다.

전주시는 전통의 향기가 물씬 나는 풍남문 일원의 상가를 대상으로 '전라감영테마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남문에서 완산경찰서 구간에 위치한 상가 31개동 48개 간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특색 있게 간판을 정비,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도비 1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간판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디자인 안 마련과 해당 지역상인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여성 고소인 위협 50대 검거

원주경찰서는 1일 돈을 빌려준 식당 여주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격분해 고소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원주 삼석음식의 B(58·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또 신고를 해보라"며 협박하고 먹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진수 기자

## 난폭·암체운전·갓길통행 등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유태기)는 이달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운영,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 단속에는 전담 경찰관 2명이 교통복을 착용하고 일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할 경우 경광등과 경찰 표시를 하고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지정차로 위반 등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높은 행위와 갓길 통행위반 등 암체운전을 집중단속하고,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하고 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버스 운행이 늘어나는 만큼 버스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와 대형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달리는 대열운행도 단속

한다. 암행순찰차는 결박기에는 일반 승용차량과 별 차이가 없으나 차량 보닛과 조수석 옆면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난폭운전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 단속한다.

유태기 서해안 고순대장은 "이달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등 7개 고속도로에서 암행순찰차 10대를 운영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서해안 고속도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